

‘감성 소통’에 꽃힌 모나미

합정동에 ‘M 커뮤니케이션센터’ 이색제품 전시, 문화강좌도 열어

문구기업 모나미가 지난달 서울 합정동에 ‘M 커뮤니케이션센터(MCC)(사진)를 열었다. 이곳에는 300원짜리 ‘153 볼펜’도 정교한 조형물처럼 전시돼 있다. 손수 짚은 나무 받침대에 위에 볼펜을 진열한 게 눈길을 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념해 제작한 200만원대 볼펜 ‘피셔맨’도 만날 수 있다. 하루 방문객은 100명이 넘는다. 다음달부터 캘리그래피 작가 등을 초청한 고객행사도 열 계획이다. 회사 측은 “저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품을 고급화하면서도 생활친숙형 브랜드가 되겠다는 모나미의 욕심이 녹아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모나미가 이미지 ‘변신’에 나선 건 2014년부터다. 당시 153 볼펜을 고급화해 내놓은 2만원대 제품 1만 개가 순식간에 판매됐다. 기존 볼펜과 같은 디자인에 촉감과 잉크를 고급화하고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바꾼 제품이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1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관심을 끌었다. 신동호 마케팅부장은 “저가 아닌 제품도 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모나미가 지난 브랜드 가치를 돌아보게 됐다는 얘기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모나미는 컨셉스토어를 차례로 열었다. 2015년 서울 흥대



1호점을 시작으로 해 2016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점 등을 잇달아 개점했다. 지난해에는 용인시 모나미 본사 1층에 컨셉스토어 스토리연구소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모나미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 학생 수 10명 내외의 예약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강좌이지만 작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00여 명이 다녀갔다. 물감 없이 모나미 프레스펜을 이용해 수채화를 그리는 강좌가 가장 관심이 높았다. 소비자가 모나미 제품을 단순 필기구를 넘어 창작활동에 쓰는 도구로 인식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모나미는 필기구와 함께 경쟁사가 내놓지 않은 이색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유리그릇 위에 쓸 수 있는 마커, 화장실 타일 마커 등이 대표적이다. 까끌까끌한 화분 위는 물론 물에 젖은 스티로폼 위에 쓸 수 있는 특수 마커도 내놨다. 신부장은 “고급 브랜드도 좋지만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문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테크온비전 화면분할 모니터 ‘다비시오’

“한 모니터서 두 대 PC 작업 ... 해상도 자동조절”

테크온비전	
설립	2016년 2월
위치	서울 가산동
제품	화면분할 모니터
특징	모니터가 해상도를 자동 조절

모니터 ‘망 분리’ 특허기술 디자인·IT업체 보안·효율성 높여

한쪽은 PC, 한쪽은 휴대폰 화면 보여주는 모니터도 개발 중



박영주 테크온비전 대표가 주력 제품인 ‘화면분할 모니터’를 소개하고 있다. 심상미 기자

2015년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였다. 박영주 테크온비전 대표는 경찰서에서 사진 등 각종 데이터를 가지러 갈 일이 많았다. 간단한 데이터라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데이터를 넣는데 1시간은 걸렸다. 경찰서 내부망에선 인터넷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데이터를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내부망을 완전히 끈 후 부품을 꺼서 자료를 메일로 보낸 뒤 내려 받아 USB에 넣어줬다”며 “그 이후엔 다시 외부망 전원을 내리고 내부망 전원을 켜는데 무척이나 번거로워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2대의 PC를 1대의 모니터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게 창업 계기가 됐다.

◆2대의 PC를 한 모니터에 박 대표가 2016년 테크온비전을 설립한 뒤 처음 내놓은 제품은 화면분할 모니터 ‘다비시오’다. 타사에서 판매하는 화면분할 모니터와 다른 점은 한 대의 PC를 사용하면서 모니터에 화면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우는 게 아니라 2대의 PC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기존 제품은 PC의 운영체제(OS)가 화면을 분리하고 분리한 화면의 해상도를 맞춘다. 하지만 이 제품은 모니터가 알아서 최적의 해상도를 찾아 조절해준다. 테크온비전은 이 기술을 독자개발해 지난해 특

허를 등록했다. 화면이 5 대 5로 분할된 모니터에서 사용자는 왼쪽 화면엔 첫 번째 PC를, 오른쪽 화면엔 두 번째 PC를 같이 띄워놓고 양쪽을 모두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 모니터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기술 개발엔 꼬박 1년이 걸렸다. 박 대표는 “1년간 시중에 나와 있는 50여 개의 화면분할 모니터를 모두 분해해 살펴본 뒤 기존에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업무 효율성 개선하고 신제품도 개발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은 망이 분리돼 있는 업무환경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박 대표는 “해킹에 민감한 정부부처나 정보기술(IT), 금융회사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돼 있어 업무 도중에도 몇 번씩 내·외부망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2대의 PC를 사용해 한 대는 내부망용, 나머지는 외부망용으로 쓰고 PC 2대가 송출하

는 내용을 한 모니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보안도 강화된다. 그는 또 “윈도 OS와 맥 OS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디자이너나 윈도와 리눅스, 안드로이드 OS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IT 개발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창업 첫해 3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지난해 4억5000만원으로 올라섰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4~5인 사무실이 주요 구매처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까지 7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연말 1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테크온비전은 후속 제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화면 한쪽에는 휴대폰 화면을, 한쪽에는 PC 화면을 분할해 보여주는 모니터를 개발하고 있다. PC를 2대 구매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PC로는 문서 작업을 하면 된다. PC 없이 휴대폰만 모니터에 연결하면 휴대폰을 PC처럼 쓸 수 있는 셋톱박스도 개발 중인 아이템이다. 박 대표는 “휴대

폰과 모니터만 있어도 휴대폰을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내년 초께 시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7-9월 으뜸중기 제품 △어댑트-다운핏 △지비솔루션즈-루나스퀘어 엘리샤 △그린테크-360폰트 칫솔 △에어택-마블 공기청정기 △푸드마스터그룹-다터틀리 펫 밀크 △오토상-자동물걸레 진공청소기 △테크온비전-화면분할 모니터 △아이티비스-마우스 스마트 패치 △홀투스 닷컴-아쿠아핏 수중식 물고기정화기 △작은평화-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씨엘바이오-올인원 크림바

망설임 끝! 2018 STF 전략

곧 종료될 마지막 절세전략 이 기회마저 놓치시겠습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비용축소

내야 할 세금은 꼭 내시고 내지 말라는 세금은 내지 마세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적절한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니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당신은 망설임이 놓쳤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적절한 비과세 제도였으나 당신은 고민만 하다 놓쳤습니다.

특히 양수도 소득세가 높아지고 당신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법이지만 곧 중단될 비과세 전략, 이번에도 망설임이 놓치시겠습니까?

환경경영지원단이 당신의 고민을 끝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525-6100
www.hankyungbiz.com

국회최초 언론사 경영전문 브랜드
환경경영지원단

기업 지원 프로그램 | 기업승계 · 자기주식취득 · 특허경영 · 인사노무 · ERP도입 · M&A
환경경영지원단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COT · TOT

혈관연구 ‘외길’ 안지오랩 “먹는 황반변성 藥 개발”

치료제 맥아이, 이달 임상 2상 내년 기술특례상장도 추진

1999년 설립된 안지오랩은 줄곧 혈관신생 한길만 걸어온 바이오 벤처다. 혈관신생은 기존 미세혈관에서 새로운 잔핏줄이 생기는 것으로 배아가 발달하거나 상처가 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황반변성, 북부비만, 자궁내막증, 간선, 압전이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김민영 안지오랩 대표(사진)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효과학기술원에서 일했다. 혈관신생 연구에 뛰어든 것은 1991년 한효과학기술원 중앙생물실장을 맡았을 때부터다. 김 대표는 “당시 의사 대다수가 혈관신생 치료제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며 “혈관내피세포를 구하기 어려워 실험하기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다.

연구성과가 지지부진했지만 그는 연구를 계속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한효과학기술원이 문을 닫았다. 김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혈관신생 치료제가 많은 질병을 고치는 데 쓰일 것이라는 믿음에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했다”고 했다.

안지오랩의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은 다년초 식물 레몬밤에서 추출한 ‘ALS-L1023’이다. 이 회사는 ALS-L1023으로 경구용 황반변성 치료제 ‘맥아이’를 만들고 있다. 이 물질은 혈관신생을 유발하는 단백질 억제제 황반변성을 치료한다. 김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삼성서울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가장 아래에 있는 맥락막

의 신생혈관이 망막 중심부의 황반을 침범하는 질환으로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맥아이는 경구제여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이리야 등 기존 치료제는 주사제여서 환자의 거부감이 크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 김 대표는 “루센티스 아이리야 등은 1종의 단백질(VEGF)만 억제하지만 맥아이는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단백질 5종을 억제해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ALS-L1023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2007년 1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약물을 복용했더니 내장지방이 15% 감소했다. 현재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내장지방은 다른 부위의 지방과 달리 붉은색을 띠는데 신생혈관이 그 원인”이라며 “혈관신생을 막으면 내장지방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내년께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계획이다. 임우 기자 freeu@hankyung.com

대동공업, 양골라에 농기계 3000대 수출

농기계 업체 대동공업이 양골라에 농기계와 건설기계 3000대를 공급한다.



대동공업은 양골라 농림부 산하 농업진흥공사(매카나그로)에 농기계 장비 1123억여원을 내년 9월까지 공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공급 대상은 트랙터(1000대(사진)), 경운기(100대), 쟁기 작업기(1700대) 등 농기계와 건설장비(180대)다. 전체 계약 물량의 30%는 올해, 나머지 70%는 내년 9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국도 면적이 한국의 5.5배인 양골라는 30년 내전과 석유산업 중심의 국가 경제체제로 농업기계화율이 1% 미만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중기부 ‘상생결제’ 2·3차 협력사로 확대

앞으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2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금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어음과 달리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를 은행이 연결하는 구조다. 원청업체가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은 결제일까지 예치계좌에 보관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 및 가압류할 수 없다. 어음의 경우 원청업체가 부도 나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중기부는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상생결제를 해 2·3차 협력사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구매 금액은 252조원으로 전체 대금지급 금액의 98.8%였다. 반면 나머지 후순위 업체의 이용 금액은 3조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상생결제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때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려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